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소설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김종광
소설가

서른다섯 살 때인가 교도소에 갔었다. 동행한 두 분은 단풍놀이라도 온 듯 여유로웠다. 대조적으로 나는 도살장을 본 황소처럼 떨었다. "저…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막 춥고 무섭고, 얼빠져 갖고 제 정신이 아니네요." 내가 엄벙덤벙 주워섬기자, 환갑의 L이 물었다. "혹시 교도소에 처음 와 보니?"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L은 대견하다는 듯이 뇌었다. "너, 참 세상 편하게 살았구나. 참 착하게 살았어." 불혹지년의 J는 "난 고향에 온 것처럼 친숙한데!"라고 했다. J는 젊은 시절에 시국사범으로 옥살이를 했었다.

가장 먼저 들른 무슨 '실'에서 주민등록증과 소지품을 꺼내 놓고 대신 명찰을 받았다. 명찰에 '지도' 혹은 '선도'라고 씌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저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몇 개의 철문을 통과했다. 교도소장은 아니었지만, 교도소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과 차를 마셨다. 그는 좋은 일 하러 오셨다고 치하해 주었다.

'글쓰기반' 담당 교도관은 미안해했다.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네요. 훌륭한 분들 모셔 놓고 정말 민망하게 됐습니다. 대개 귀찮아하기는 합니다. 종교 하는 분들, 바른 생활이니 도덕 함양이니 정의 실천이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오거든요. 그분들이야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아이구야, 여기 사는 사람들 귀에는 다 지겨운 설교죠. 초코파이나 사탕이나 군것질거리라도 나눠 준다고 하면 좀 신청자가 있을까. 그래도 이번 프로그램만큼은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글쓰기 강좌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시, 수필, 소설! 말만 들어도 황홀하네요. 글 쓰게 도와주고 좋은 책 얘기 들려주고 얼마나 좋아요. 똑같더라고요. 지원자가 여덟 명밖에 없어서 스무 살 갓 넘은 애들 여섯 명을 우격다짐으로 끌어왔습니다. 너희들은 감옥이 대학이거니 생각하고 하나라도 배워야 한다. 너희들이 언제 문학을 배워 보겠냐 하고 강제로 포함시켰습니다."

나는 덜덜 떨며 무슨 '실'로 들어갔다. '글쓰기반'에 모인 수인들은 가슴에 숫자를 달고 있었다. 세 자리 혹은 네 자리. 수인들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여유로웠다. 표정으로만 따진다면, 내가 더 수인 같았다. 뭐라고 불러야 하지? 수인님? 대놓고 '수인'이라고 호칭할 용기는 없었다. '아저씨?' 갓 스무 살에서 환갑 넘은 게 틀림없는 백발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포진한 사나이들을 '아저씨'로 '퉁칠' 수 있을까. 열 명은 파란색 옷, 네 명은 황색 옷이었다. '파란색 옷님'과 '황색 옷님'이라고 부를까.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의 없게 하자니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깔볼 것 같고, 공들여 하자니 때와 장소도 가리지 못하고 잘난 체 하는 놈으로 오해받을 것 같았다. 적당히 하고픈데, '적당히'처럼 어려운 게 없었다. 나는 문학이 어쩌고저쩌고, 글쓰기가 이러니저러니, 독서가 이러쿵저러쿵 마구 주워섬겼다.

수인 한 분이 불쑥 물었다. "근데요. 소설 쓰시는 분이라니까 한번 물읍시다. 소설을 왜 읽어야 합니까?" 나는 문득 넋이 나가 버렸다. 중3때부터 소설이 쓰고 싶었고 문예창작학과씩이나 다녔고 좋다는 소설깨나 읽었고 심지어 '소설은 사람의 지식과 사상과 감정을 문자로 형상화하여, 사람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가능케 하고, 사람의 소양 발전과 인식 확장과 감정 조율 등에 기여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 소설 따위를 왜 읽어야 하는지 안다고 자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왜 읽어야 하는지 안다. 왜 읽어야 하냐면 내 말보다는, 향년 54세로 올해 9월 이 세상을 떠난 고(故) 최옥정 소설가의 유언이 명쾌하다.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특히 소설을 많이 읽기를 바란다. 나는 믿는다. 소설 읽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은 그만큼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내가 아닌 타인이 언제나 마음을 열고 인생을 보여 주며 기다리고 있는 소설,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읽기를."

종교칼럼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 C(Choice)다'

장형규
원불교 사무국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조회 시작과 함께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에 맞춰 외워야 했었다. 어린 시절임에도 나에게 이 첫마디는 상당히 충격적인 문구였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회와 국가에 상호 이익을 주고받으며 발전시켜나간다. 그러나 민족이나 국가의 중흥이 나 개인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의미라 할 수는 없다.

근대 산업 사회를 거쳐 문명을 발전시킨 인류는 과학 기술의 발전과 산업 혁명을 통해 장밋빛 미래가 인류의 역사가 될 것으로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과학 문명의 혁신은 오히려 더욱 강력해진 무기의 개발로 이어져 전쟁이라는 불구덩이로 인류를 내몰았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상과 이념, 종교, 계급의 갈등과 차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이는 과학 문명의 발달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인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그럼 나에게 있어 행복의 문제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는 '삶의 의미'를 말하면서 성공이야 말로 행복한 삶의 전제 조건이며, 그로 인해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살아가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참된 자신을 발견해 살아가는 기쁨을 포기하고, 미래의 행복만을 좇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보곤 한다. 이는 남이 규정해놓은 성공과 행복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해 그 결과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데 말이다.

개인으로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이다. 필자가 가끔 되뇌는 시가 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도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윤동주의 '나무'라는 시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시의 문구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잦아야 나무가 잠잠해져야 맞지 아니한가. 하지만 이 시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모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동호회에서 오랜만에 놀러왔는데 눈이 내려 참 좋아요. 축복받은 것 같아요"라고 기쁨을 표했다. 하지만 어느 택시운전사는 "눈이 내려 차량 접촉 사고가 나서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네요"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똑같은 눈이 내렸는데도 어느 사람에게는 축복의 눈이고 어느 사람에게는 고난의 눈이 된 것이다.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 새벽은 정해진 몇 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벽잠에 깨어 창문을 열면 새벽이 시작된다는 의미와 같다.

지난 달 함평의 김정순 할머니가 노점상으로 모은 1억 원을 전남대에 장학금으로 희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학금을 건네면서 "장학금이 소진되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후원할 생각입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훈훈한 소식이었다.

우리는 살면서 처지와 상황, 환경에 따라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바로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돈이나 명예, 권력 같은 밖의 것들로 삶의 목적을 좇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남에게 있지 않고 선택을 한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인생은 B(Birth)와 D(Death)사이에 있는 C(Choice)다'라는 말이 있다. 나의 선택에 의해 끊임없는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선택과 책임의 문제 또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삶은 내가 선택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위대한 존재이며, 나는 이미 눈부시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동안 남에게 탓을 했던 원망을 내려놓고, 참된 나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느꼈으면 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하는 설렘으로 삶을 살았으면 한다. 무엇보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기 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포럼 참가기

최현도
조선대 경영학부 교수

몇 해 전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에게서 연락이 왔다. 졸업생의 연락은 언제나 반갑다. 기쁜 마음에 메일을 확인했는데, 아뿔싸.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포럼에서 발표를 부탁하는 메일이었다. 솔직히 메일은 열어본 그 순간에는 난감했다. 사회 과학을 전공한 내가 예술에 대해 아는 것은 '모나리자' 뿐인데…. 그래도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던 친구였기에 나도 모르게 수락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내 손가락을 탓해서 뭐하랴. 정신 차리고 발표 준비에 돌입했다. 이왕 참석하는 것 적극적으로 관찰해서 뭔가 하나라도 배우고 오자 마음도 먹었다.

드디어 포럼 당일. 포럼 장소에 도착해 발표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참석자들을 둘러보았다. 예술가 뿐 아니라 문화정책 전공자, 예술 플랫폼 운영자, 미디어아트 국제 행사 기획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포럼 참가를 위해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 이들을 보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예술가만을 위한 행사는 아니구나 하는 위안이었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포럼 장소에 모인 만큼 생각하지도 못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 예술 플랫폼 운영자는 기부에만 의존해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디어아트를 위해 제 3의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정책 전문가는 급변하는 과학 기술과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작품을 주문했고, 다른 한 예술가는 그림이나 조각과 같이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창작된 미디어아트를 어떻게 소장하고 보관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었다.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주제임이 분명했다.

엉뚱한 아이디어는 다양성에서 나온다. 이번 포럼은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협의체에서 기획하고 운영을 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광주 지역 유관 단체들이 모여 포럼을 주최한 만큼, 포럼에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시민들이 초청될 수 있었다. 예술을 잘 모르는 내가 초대된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결국 우리는 함께 모여 혼자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전체 과정에서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번의 포럼으로 나온 아이디어는 휘발성이 강하다. 제시된 아이디어는 구체적 행동으로 실행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런데 포럼에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새롭다는 사실이 문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미디어아트를 위한 제 3의 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미션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만큼 실행에 어려움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보고 따라할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첫째, 미디어 창의도시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은 계속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 포럼은 그 시작점일 뿐이다. 둘째, 실행 과정은 어렵고 복잡하다. 아마도 더딜 것이고, 그럴수록 사람들은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셋째, 이런 때 유용한 것이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사람들이 관심을 잃어갈 때, 그래서 만남이 줄어들어 갈 때, 새로운 공통점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실행 과정에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는 항상 즐겁다. 하지만 생산적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포럼은 마무리 됐다. 다양한 이야기가 즐겁게 오고갔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광주에 사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미디어아트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社 說

학생독립운동 유공자 포상 확대 좋은 일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인 1929년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일어났다. 북한 지역을 포함해 전국 300여 개 학교에서 학생 5만40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그 여파로 무려 582명이 퇴학당했고 2330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중 정부 포상을 받은 유공자는 모두 427명에 그치고 있다.

학생독립운동 유공자가 이처럼 소수인 것은 그동안 정부의 포상 기준이 실형 위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기존 포상 기준은 '수형·옥고 3개월 이상'으로 규정돼 대부분의 참가자가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뒤늦게나마 국가보훈처가 내년 학생독립운동 9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일제 강점기 학생이 독립운동에 참여해 퇴학을 당한 경우'도 '포상 심사 기준'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항일 학생운동 참여 학교 학적(제적)부 전수 조사'도 추진한다. 전수 조사 대상은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일고 전신) 등 광주·전남 지역을 비롯한 전국 166개 학교 가운데 학적부가 국가기록원 또는 학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55개 학교다. 이번 조사의 토대가 되는 당시 학적부에는 해당자들의 3·1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동맹 휴학 참여 등 구체적 처벌 사유와 징계 내용이 기재돼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학생독립운동 89주년 기념식을 정부 행사로 승격해 치른 데 이어 그 선양 사업에 착수한다니 반가운 일이다.

학생독립운동 정신은 5·18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한국 민주화의 뿌리가 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후의 일인까지 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선양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부할 명분 없다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소수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야 3당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성토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까지 압박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다. 현행 승자 독식 선거제에서는 당선자 1인을 제외한 후보에게 던진 표가 모두 사표가 되는데 이를 막고 정당 지지율에 맞게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고 거대 정당은 의석수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 총선을 기준으로 보면 정의당은 7.2%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는데 의석수는 6석에 그쳤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체 의석수(300석)를 기준으로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7.2%인 22석을 얻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25.5%로 지역구를 포함해 128석을 확보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80석 이내로 줄어든다.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당 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세 가지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세 가지 안에는 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약속한 사항이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까지는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이제라도 유권자 기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상(隊商)의 행렬

음악을 좀 좋아하는 40~50대의 성인이라면 학창 시절 인기를 끌었던 '카라반 사라이'(Caravan Sary)라는 곡을 기억할 것이다.

일본 출신 세계적인 뉴에이지 신디사이저 연주자 '키타로'의 1975년 작품이자, 여기에 미국의 팝 록 그룹 '페이지스'가 1988년 영어 가사를 입힌 노래이다. 이 곡은 일본 NHK와 KBS의 연재물 '실크로드'의 OST에 '대상(隊商)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삽입됐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연주와 아련함을 더한 페이지스 보컬의 조화가 돋보이는 노래이다. "…마치 낮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늘을 여행하는 대상의 행렬/ 언제 어디로 가야할지 알고 있지요…" 노래의 가사는 꿈을 찾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대상의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해 준다.

대학 시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모래바람에 맞서 고개를 수그린 채, 낙타 고삐를 쥐고 길을 재촉하는 나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결국 30년 전의 상상은 나를 실크로드로 이끌었다. 올해 친구들과 함께 실크로드의 중심이랄 수 있는 중앙아시아 사마르칸트를 여행했으니 말이다. 지금은 사막이 아니지만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은 수백 년 전 인도, 중국, 서방의 상인들이 한데 모인 거대한 바자르의 위용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애초 대상이란 사막 지방에서 교역하는 상인들의 무리를 말한다. 대상은 운송수단으로 '사막의 배'라고 하는 낙타를 주로 이용하는데, 그밖에 당나귀·말·야크 같은 가축도 있었다. 대상은 지역에 따라 규모가 다양했다. 내몽골을 비롯한 중국 서북 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대상 규모를 보면 낙타 20마리가 최소 단위이며, 일반적으로 200~300마리로 무리 지어 이동했다. 대상에 종사하던 민족으로는 아라비아인·그리스인·시리아인·페르시아인·투르크족·몽골족·한족·유대인 등이 있었다.

낙타를 타고 장사를 떠난 무리를 일컫던 대상이라는 말이 현재는 중미 등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이주민 행렬(카라반)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대상의 오아시스와 같은 국제 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여론매체부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0 652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